

## 학계의 당동벌이?

김 정 안 (고분자하이브리드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새해가 밝았으니 지난해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해 인구에 회자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한번은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반성해 봐야하지 않을까?

회고 하건대, 먼저 괴로웠던 사실은 유명한 휴양지들이 실낙원(失樂園)이 되어 버렸던 일일 것이다. ‘쓰나미’(지진해일) 때문에 남아시아 인도양 상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의 해변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쓸대밭이 되어 버린 광경에 아연실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정말 미미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몰디브는 자연의 산호초 군락을 잘 유지시켜 이번 지진해일 피해를 자연의 힘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매스컴에서는 난리를 하였다. 더불어 고속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 부근의 청성산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을 통한 환경 보호를 외치고 있는 지울 스님의 말씀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겨울 시작에는 이상 난동현상 때문에 모기가 극성이었는데 늦었지만 강추위가 내습하여 모기의 생존에 치명타를 가하고, 눈썰매장이나 스키장 업주들의 도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민들도 레저를 즐길 수 있어서 더욱 다행스러웠던 것 같다.

다음은 ‘당동벌이(黨同伐異)’ 라는 말이 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2004년을 가장 잘 표현한 자조 섞인 고사성어란다. 동질성의 집단이 모여 자기들과 의견이 맞지 않은 타 집단을 공격한다는 의미란다. 꼭 맞는 말 갖기도 하다. 나도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이라 나의 바깥쪽을 탐하는 다른 무리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공격한 일은 없었는가? 특히, 매스컴에서 밝힌 사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SKY대 출신들이 미국으로 유학하여 박사 학위 취득한 순위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다(S대; 1위, K대; 8위, Y대; 5위). 이러한 결과로서 이들은 한국의 세계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국내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취직자리가 보장되는 길은 외국어로 최소 영어 하나만은 확실하게 배워 두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남보다 조금은 튀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유명 대학 동창회에 몸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이지요? 그것도 21세기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하여 기러기 아빠를 넘어 심지어 펭귄 아빠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서운 용어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자식들은 조금 편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키우고 싶다는 우리 대부분(특히, 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당동벌이 형태가 아닐까? 이러한 현상은 쭈우~욱 계속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노동 귀족이라는 말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당동벌이를 내포하는 의미가 아닐까?

인간의 즐기세포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으로부터의 탈출에 의한 행복 추구는 온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상적이지 말아야한다. 틀림없는 사실은 유비쿼터스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 한사람이 전부를 이룰 수는 없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할 일이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伐異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 과학 기술계에서는 나의 ‘파이’를 키우기 위하여 결정되어 있는 파이를 많이 갖기를 노력하지 말고, 더욱 큰 파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난 뒤 더욱 큰 조각의 파이를 갖도록 모두 힘을 합쳐 보자는 것이다. 즉, BT도 중요하고, IT, NT, ET 및 ST 아님 CT 모두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기술 분야일진대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BT가 더욱 중요하니, 덤으로 얻

어 달라고 말하자는 뜻이다. BT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IT 및 NT 분야에서의 파이를 잘라서 가져가는 형태는 또 다른 당동별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학계를 개혁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모 TV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그때 그때 달랖요!’라는 말을 되새겨 봄직도 하다.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향은 안전이 그런 ‘무릉도원도’에서 느끼는 기분과 무엇이 다르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오정 혹은 오륙도를 넘어 삼일절이란다. 31세에 절망감을 갖는구나? 하물며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니 2050년쯤 두 사람의 젊은이가 한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 확실할진대,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 공부하는 이공계를 왜 진학하겠는가? 우리에게 꿈이 없단다. 요즘 젊은이들 대학 졸업해도 원하는 직장(대기업) 잡기가 어렵기에 절망감 느끼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아니면 똑똑한 녀석들은 의과 대학으로 진학하여 평생 의사 자격증 갖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법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데, 젊어 한번은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장학금보다 졸업 후 평생직장 보장된다는 꿈이 있다면 이공계 기피현상 줄어들고, 또한 기러기 아빠 줄어들고, 유학으로 빠져나가는 아까운 외화 멈출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대학 개혁, 기러기 아빠, S(1), K(8), Y(5)대, 미국 박사(해외파), 편파적 공정(당동별이), 기득권층, 유비쿼터스(ubiquitous).